

김정은 측근들과 총출동…북중 관계회복 힘 실었다

김정은 첫 방중 수행단 보니

최룡해·김영철 등 당 실세들

리설주 동행 시진핑 부부 만나

북한이 28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 사실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김 위원장 수행자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방중에 부인 리설주가 동행했으며, 최룡해·박광호·리수용·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조용원·김성남·김병호 당 부부장 등이 수행했다고 전했다.

최룡해는 지난해 10월 간부 인사권과 통제·검열권 등을 모두 거머쥔 당 조직지도부장에 임명되며 명실상부한 북한의 2인자로 자리 잡았다. 특히 그는 군 총정치국장 재임 시기인 2013년 5월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했으며, 노동당 비서를 지내던 2015년 9월에도 중국의 전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김정은(맨 오른쪽) 위원장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왼쪽 두번째)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회담하는 모습. /연합뉴스

절 행사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찾아 중국 지도부에게는 구면이다.

박광호는 작년 10월 조직지도부와 함께 노동당의 양대부서로 불리는 선전선동부의 부장으로 임명되며 당 부위원장, 당 정치국 위원 등으로 일약 승진한 인물이다. 리수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청소년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 후견인 역할을 맡았

던 오래된 측근으로, 2016년 5월부터 북한 외교의 총사령탑인 노동당 국제 담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을 맡고 있다.

리수용도 최룡해와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과 구면이다. 그는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그해 5월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 결과를 설명

했다. 김영철은 군부 출신으로 군 정찰총국장을 거쳐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현재는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 올랐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고위급대표단장을 맡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특별사절 대표단의 면담에 배석하기도 했다. 북한 외교 분야의 핵심 실세인 리용호는 외무성에서 핵·군축 분야를 담당하며 오래전부

터 대미 협상에 참여했고, 2016년 5월 리수용의 후임으로 외무상에 올랐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고 북중 정상회담에 리수용, 김영철, 리용호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타결을 비

롯한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룰 세 사람이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 수행자로 호명된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현장 시찰을 거의 매번 수행해 ‘김정은의 그림자’로 불린다. 2014년 12월부터 북한 매체에 등장한 신세대 실세인 조용원은 이번에 김 위원장의 해외 방문도 수행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어 전담 통역사 출신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물론이고 방북한 중국 고위인사들과의 면담 때마다 통역을 맡았다. 북한의 대표적인 중국통인 김성남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도 대중외교 분야에서 활약해왔다.

김병호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조선중앙통신사 사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당 부장과 함께 노동신문사 책임주필도 맡고 있어 이번 방중 결과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지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아베 ‘일본 패싱’ 당황…꼬여버린 대북 강경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28일 양측의 발표로 공식 확인되자 패닉에 빠진 모양새다. 그동안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해 남북간 화해 무드가 본격화할 때만 해도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며 경제제재 등 대북강경론을 주도했지만, 상황이 완전히 꼬여버렸기 때문이다.

오는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며 1차 충격을 받았던 일본은 북중정상회담마저 전격 성사되자 그야말로 공황상태에 빠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자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측으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본이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중국측으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이나 언질을 받지 못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이 중국측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방중을 사전에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런 발언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본만 소외되는 ‘재팬 패싱’ 현상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아베 총리는 이런 대화 분위기를 끌어내는 데 일본이 공헌했다는 ‘역할론’을 제기했다.

일본이 대북 경제제재 등 국제사회의 압력 강화를 주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냈다는 것이지만, 이는 ‘재팬 패싱’ 논

란을 회피하기 위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일본 정부는 한국과 미국측과 주중 북한대사관 등을 통해 북한에 아베 총리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의사를 전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국, 한국에 이어 중국과 관계개선에 나섬으로써 압력강화 노선을 주도해 온 일본을 비핵화 협상의 장에서 제외시키고 ‘북한 페이스’로 협상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또 중국도 이번 북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국면에서 미국에 맞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도 일본 정부로서는 고민거리다. /연합뉴스

“러시아 못 믿어”…서방 국가들, 러 외교관 추방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독살기도 사건 러시아 배후 의혹과 관련,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곳곳의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보복조치로 현재까지 150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거나, 추방하기로 한 것으로 27일(현지시간) 집계됐다.

테라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25개국이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수치는 지금까지 있었던 외교관 추방 사례에서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국가들이 추가로 러시아에 대한 보복조치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돼 추방되는 러시아 외교관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26일 자국과 유엔에 주재하는 60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기로 결정,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섰다. 이들 가운데는 미국 정부가 스파이로 지목한 사람들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아울러 시애틀에 있는 잠수함 기지와 보잉사에 대한 스파이 활동 의혹을 내세워 시애틀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의 철수도 요구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캐나다도 4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기로 했고, 호주도 2명의 러시아 외교관에 대해 7일 이내에 호주를 떠날 것을 통보했다.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7일 나토에 주재하는 러시아대표단 소속 외교관 7명을 추방했고, 현재 부임을 위해 신임 수속을 밟고 있는 3명의 외교관에 대해서도 신임장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나토 주재 러시아대표단 규모는 현재 30명에서 20명으로 3분의 1 줄어들게 된다.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에선 18개 나라가 EU 정상회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보복조치에 동참했다. 영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양측은 최근 영국 솔즈베리에서 발생한 ‘러시아 출신 이종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으로 상대국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노믹스 성공? 일본 지방도시 땅값 상승

장기 침체를 겪었던 일본의 지방 도시 변화가 땅값이 26년만에 상승세를 보였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8일 보도했다.

국도교통성이 전날 공표한 올해 1월1일 공시지가에 따르면 도쿄·오사카·나고야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상업지’의 지가가 전년보다 0.5% 올랐다.

지방 상업지의 지가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버블시대 붕괴(1991년)로 경기가 불황기로 돌아선 뒤 27년만에 처음이다.

전체 공시지가가 평균도 작년보다 0.7% 높아져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역시 27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지가 상승의 이유로 경기 회

복과 대규모 양적 완화를 특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꼽았다.

특히 지방 변화의 땅값이 오른 데에는 일본을 찾는 외국의 여행자들이 늘어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마이니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며 변화가 호텔 건설이 늘어난 것이 지방의 지가가 올라간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홋카이도 쿄찬초의 경우도 해외 방문자의 증가와 리조트 관련 수요가 늘어난 것이 땅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취학연령 만 6세→만 3세 낮출 듯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교육개혁 프로그램의 하나로 프랑스 모든 어린이의 취학연령이 만 6세에서 만 3세로 낮춰질 전망이다.

프랑스 AFP통신과 영국 BBC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유치원 교육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초등교육 정책 개편 계획을 발표하며

“2019년 새 학기부터 의무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취학연령 만 3세는 유럽에서 학교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작하는 가장 어린 나이라고 BBC는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변화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마련했다며 “프랑스 교육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내 최빈곤 지역과 해외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덜 보내는 것 같이라며 “우리는 이런 용납할 수 없는 격차를 고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이번 교육개혁이 소수의 어린이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BBC는 전망했다.

프랑스 학부모 대다수가 이미 만 3살에 아이들을 입학시키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장기투자가치 좋습니다, 회사 사정상 매매함,010-3605-5000

덕남동 -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4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평당 20만원
- 일사불대폭 조정가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무인도)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있음
- 교환가능(현금3억+기타부동산)
- 매매 - 14억 (대출3억포함)

거문도,토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도로접, 전망 좋음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락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음
- 매매 - 11억 (조정가)